

1. 공무국외여행계획안

○위원장 이명원

(10시 59분 회의시작)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명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홍순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순헌 위원님, 편하게 제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헌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다음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팀장은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의정팀장 김명룡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심의자료를 보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연수개요입니다. 먼저 연수목적입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해운대구의회 의원으로서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와 의회제도 및 운영 등을 참관하고, 비교분석 함으로써 우수 사례의 도입 및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우리 부산과 유사한 싱가포르, 홍콩 두 지역의 관광 및 홍보정책자료 수집, 현지의 대중교통, 관광 인프라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둘러보면서 관광과의 연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파악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연수동기 및 배경입니다.

2000년 초 다른 아시아와 달리 선진도시로 발돋움한 지역의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제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밀접 행정서비스 사례 및 자료, 지방의회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에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각 나라의 관광 및 홍보정책을 수집하고, 관광 인프라 및 대중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을 둘러봄으로써 우리와 비교·분석할 수 있고, 관광과 도시기반시설의 연계 방안 및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지방자치와 의회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운대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보다 나은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이번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국가는 싱가포르, 홍콩으로 연수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4박 6일간입니다. 연수 참여자는 의원 10명, 직원 4명으로 대상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연수일정에 따른 세부적인 연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일정은 11. 3 ~ 11. 8일까지 4박 6일간으로, 한국총영사관 등 5개 기관을 방문하며, 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과 도시기반시설의 연계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사례 벤치마킹으로 관광도시 해운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방문하여 홍콩의 관광 및 홍보정책에 대한 자료수집과 운영실태,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 사례 및 부산, 홍콩 관광 인프라 현황 비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토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리를 옮겨 홍콩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을 방문하여 홍콩의 관광정책과 우리와의 비교, 향후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며, 이어서 부산, 홍콩 관광교류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빅토리아 피크’, 중심지인 침사추이 일원 등 현장을 둘러보며, 홍콩의 문화재 보존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친환경 해양정비시설 등을 확인하고, 우리 구의 관광정책 방향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날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우선 ‘싱가폴 Visitor Center’를 방문, 싱가포르의 관광 및 홍보정책에 대한 설명과 관광안내 서비스 제도 및 운영 등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듣고, 토의 및 질의응답을 갖게 됩니다.

다음 날에는 ‘싱가폴 의회’를 방문하여 시 역사관을 견학하고, 싱가포르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에 대한 자료와 함께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 토의 및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관광 및 홍보정책에 대한 자료수집과 운영실태,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 사례 및 부산, 싱가포르 관광 인프라 현황 비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연경관을 활용 관광자원과 연계한 국립식물원 ‘보타닉 가든’과 ‘주룽새 공원’을 둘러보게 되며, 우리 구 벅스코와 관련 MICE산업계의 대표주자인 ‘마리나베이샌즈’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MICE 관련 정책, 컨벤션센터 운영 및 회의 유치 현황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인별 역할 및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연수자들에게는 크게 3개의 정책과제를 정하고, 참가자들에게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운영 활성화 분야에는 타 도시 지방자치와 의회제도 및 운영에 대하여 자료 및 우수 사례 수집, 우리 구 접목 검토를 중심으로 이문환, 이명원 의장단, 임말숙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까지 4명으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 현황 및 운영분야에는 대중교통, 공원시설, 녹지정책 현황 및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 손유정, 조영진 의원, 김의현 직원까지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광 및 홍보정책과 타 분야와의 연계 분야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등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방자치 및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구에는 어떻게 접목할지를 중심으로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정성철, 서강식, 홍성운, 서정학 의원, 김명룡 의정팀장, 조대학 직원까지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역할 및 정책과제를 분담하여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연수기간 중에는 매일 일과 후에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수일지를 기록, 일지 위주로 소감 발표와 토론회 개최 등 의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연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수에 따른 연수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6 규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및 별표 2 규정에 따라 산출했으며, 환율은 계획서 수립 당시인 10월 10일자 기준으로 1달러당 1091.1원입니다.

경비는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금액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혹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연수에 참여하는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수효과에 대해서는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수 결과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9조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탄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님.

○김재선 위원

저희들이 와서 늘 보면 프로그램을 잘 짜시고, 잘 하셨는데 이번에 싱가포르를 정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은 우리 부산과도 많이 닮았고, 우리 한국과도 많이 닮았는데요. 경제적 뿐만 아니고, 해운대 지역과 비슷한 문화권이 있는... 싱가포르에 다문화가 있는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가 참고를 하んですよ. 지금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약 30% 정도로 외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스트리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착안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제가 호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우리 달맞이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홍콩에 빅토리아 피크가 있지 않습니까? 침사추이도 그렇지만 빅토리아 피크는 밤에 가는 것이 홍콩 진짜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즐거움이거든요. 그런데 시간대를 보니까 5시면 보고 급하게 가기 바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전날에 낮에는 중국 전통 민속을 보시는 것으로 바꾸셔서 밤에 이곳에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달맞이를 올라가는 것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수반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차길이 있는 그 선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모르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착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연구해서 가 보시는 것이 어떨겠나 싶습니다. 낮에는 아마 그 즐거움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전문여행사와 같이 며칠 전에도 의견교환을 한번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부분은 저녁에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너무 어두워져서 가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가시면 내려올 때는 어두워지니까 그것이 좀...

○의정팀장 김명룡

지금 현재 홍콩이 치안부분도 조금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 시간대하고 보안이나 치안에 문제가 안 되게끔 전문여행사와 사전에 외교통상부와도 같이 해서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김재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난해에 공무국외연수 심의를 하시면서 김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지적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란 위원

저도 김재선 위원님처럼 선정한 지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홍콩, 싱가포르 우리 부산하고 똑같이 항구도시지 않습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해서 관광 인프라와 관련한 공부가 많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활발한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김재선 위원님과 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

고 싶은데, 이미 스케줄이 다 정해진 부분이니까 그냥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반영해 주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국외연수와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쨌든 세금을 쓰는 부분에는 예민하시고, 그래서 이런 국외연수가 얼마나 의미 있게 진행되는가 하는 틀을 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왕 연수 스케줄이 몽땅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관점도 조금 더 보완하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 하면 사실은 해운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너무나 아름다워서 관광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보완하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다운 곳에 항상 옥에 티 같은 그런 측면을 늘 보면서 ‘이것이 왜 개선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물류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광안대교에 늘 컨테이너가 다니거든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트럭, 온갖 화물 용달차들이 엄청나게 해운대를 휩쓸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류라는 것이 부산이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간혹 신공항 얘기도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해운대가 안 그래도 길이 몇 개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 여름에는 교통대란이라는 그 지옥을 앓으면서도 계속 컨테이너 화물 관련한 내용들이 규제는커녕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분명히 세계적인 물류도시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와서 적절하게 관광과 연계해서 충분히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저는 관광자원을 정말 훼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항구도시로서 너무나 유명한 곳이고, 누구나 죽기 전에 한 번 가봐야 될 여행지로도 손꼽히는데, 그들이 항구를 끼고 있으면

서도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그 부분들을 많이 공부해 오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번에는 우리 해운대구가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선진연수를 통해서 굉장히 시스템 있게 그런 부분을 공부하러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늘 관광도시로서 성장은 이만큼까지 돼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가 되었는데, 이전에 구청장님께서 ‘세계’라는 단어를 붙이실 정도로 세계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재난·재해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의 프로텍션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마로 조금 더 보완하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의정팀장님, 위원님들이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류 부분하고 재난·재해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연수일정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더 없으십니까?

정성철 위원님.

○정성철 위원

계장님, 여기 1차 일정을 보시면 굳이 심천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심천에 가서 하는 것도 없는데, 노인복지기관을 왜 심천에서 봐야 되지요?

심천의 노인복지기관에서 우리가 볼 게 있는가요? 일정조정이 안 됩

니까?

○의정팀장 김명룡

일정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심천까지 시간을... 초선 위원님이 많아서 좀 그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볼 것이 있으면...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별로 볼 게 없더라 말입니다.

이것은 관광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관광인데,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김재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콩에서 하루 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원

잘 알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원

반면교사〔反面教師〕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선진만 갈 것이 아니고요. 아마 의정팀장께서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심천의 노인복지기관을 선정한 사유를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가지고, 정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관광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빼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정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정성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홍순헌 위원님.

○홍순헌 위원

몇 년째 이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나마 계획이 참 잘 되었다, 김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비해서 잘 됐다는 뜻입

니다.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것이 과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 갔다 왔지요?

○의정팀장 김명룡

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 갔다 왔습니다.

○홍순헌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곳이 선진지냐,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걱정도 많이 했고, 다녀와서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선진지라고 해 놓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데 갔다 왔느냐?’,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숙제거리를 풀 것이냐 하는 것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 타이틀부터 수정을 해 놓고 가는 것이 어떨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외 선진지 견학’ 또는 ‘문화탐방’, 이렇게 가면 우리보다 좀 후진국으로 갈 때는 문화탐방을 통해서요.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후진국으로 갈 때는 ‘문화탐방’ 이라고 붙이시고, 선진국으로 갈 때는 그대로 ‘선진국’ 으로 붙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의정팀장 김명룡

예, 알겠습니다.

○홍순헌 위원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홍콩, 싱가폴은 아마 관광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명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정란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을 위주로 보되,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가이드가 전달해 주는 그 정도 수준 이상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찾아보고 느끼고 올 수 있는 것은 재난안

전이나 교통, 이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 마인드로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좀더 보충하셔서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자료도 좀더 적극적으로 얻어 오시고, 그래서 다음 의회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역을 쳐다보니까 여행자보험이 빠진 것 같은데, 여행자보험 내역이 왜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 외에 우리 예산으로 반드시 추가로 여행자보험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해운대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분들인데, 만일을 대비해서요.

가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여행자보험은 우리 예산으로 추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꼭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여행자보험이 빠져 있습니까?

○홍순헌 위원

여기 내역상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금액이 적어서 만 단위 이하라서 뺐 것이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순헌 위원님과 문정란 위원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재난안전,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식을 가지고 가서 좋은 자료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획을 짜면서 우리 해운대구의의회 의원 공무 관련 규정이 공무국외여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의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검토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경 위원

아까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많은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측면이 조금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연수하시는 목적이 결국은 해운대구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 지역의 특성을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지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은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고층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린시티부터 시작해서 고층건물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깥의 항만의 재난만이 아니라 소방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주민들의 대피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런 고층건물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준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거의 차를 안 갖고 나와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이 어느 지역이든지, 일반 시민들이 내릴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우리가 관광 쪽에서도 또 한 번 인프라를 본다면 컨벤션 같은 것이 우리 해운대는 지금 벅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벤션에서 조금 더 해운대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들을 유치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보시고, 또 아무래도 항만을 끼고 있는 마린시티 쪽에서의 관광도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해운대구가요.

저도 저녁에 동백섬 같은 데를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

오후 같은 때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공간이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코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시내투어를 할 수 있는 해운대 쪽만의 어떤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맛집들이 미리 선정되어 있지만 그런 맛집들도 더 많이 개발해서 제대로 안내가 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간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영어표기라든지, 이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가 관광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특히나 해운대는 그런 부분을 좀더 야경이 정말 멋있을 수 있도록... 거기도 지금 사람들로 인해서 저녁때는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여름에 한철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사계 동안 해운대가 정말 부산에서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공부를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스튜디오도 있는데요. 우리도 영상이 있지만 이런 쪽에서 한 번 더 국제영화제가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를 가시면 사실은 문화적인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접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굴하는 작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김재선 위원

제가 이은경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싱가포르에...

이것은 관광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금 마린시티가 해운대 구민들이 복 받을 만큼의 해운대구의 인프라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 건물만 올라왔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상가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의 형성

이 마린시티가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것에는 못 미쳐요.

일반 구, 일반 동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랍스트리트’ 라는 곳이 있어요. 다국적 국민의 싱가포르이지만 ‘아랍스트리트’ 를 왜 제가 권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그러니까 아랍의 골동품이라든가, 물건, 음식, 아까 이은경 위원님도 음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간판이 크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 거리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만져보고, 하나씩 들고 오고 싶고, 저는 조그마한 것을 사 가지고 올 정도로 그런 것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안 보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보다는 ‘아~ 애네들이 이것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형성이 될까?’, 저도 항상 궁금해 했거든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둔 것 같은데도 ‘아랍스트리트’ 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리고 형성이 너무 멋지게 됐다는 것, 그리고 곳곳에서 축제는 아니라도 조그마한 장이 낮이든 밤이든 열려요.

제가 그 거리를 누비면서 조그마한 것을 하나씩 사고, 맛도 보는 그런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린시티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빅토리아피크’ 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맞이 언저리라든가, 그 옆을 이용할 수 있는 원가의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안에는 빠져 있지만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아랍스트리트’ 를 거닐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100년 된 레스토랑도 있으니깐 한번 가보셔서...

우리 해운대구의 재래시장인가요, 아니면 마린시티의 고급화를 조금 더 멋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고맙습니다.

○의정팀장 김명룡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원

다른 위원님들 또 좋은 말씀 있으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임말숙 위원

이번에 외부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자체의 위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요. 이명원 위원장님이나 정성철 위원님은 3선이고, 또 재선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의회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초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원간담회를 할 때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정성철 위원님은 부지기수로 엄청 다녀오신 곳입니다.

그런데 초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명원 위원장님도 배려해 주시는 그 부분이 정말 초선으로서 다선 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홍콩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던 부분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수입으로 GDP를 많이 올리는 데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고요.

오늘 위원님들을 뵈니까 홍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난·재해 안전, 교통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기타 등등으로 박식하게 요지를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모든 부분을 메모해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한테 그대로 전하고,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배워와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남들이 볼 때는 꼭 관광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초선이 이번에 13명 중에 거의 3분의 2가 초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단순히 세금을 낭비하는 외유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보완을 드리면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비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들 위축돼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조금은 더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연수경비를 보니까 물론 의원님들에 대한 연수경비와 직원분

들의 연수경비가 조금 차별화되어 있고, 또 급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식비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차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철 위원

아닙니다.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홍순헌 위원

부족한 것은 정성철 위원님이...

○김재선 위원

정성철 위원님하고 이명원 위원장님하고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봐야지요.

○홍순헌 위원

위원장님, 저도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우리가 챙겨보고 올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은 지역구가 반여동이니깐 그나마 충분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쪽 밖에 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못 느끼거든요. 김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린시티나 이야기하고, 신시가 지나 이야기하고, 우리 구청 주변이나 이야기하지, 그 외적인 부분에는 우리 해운대구도 존재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꼭...

싱가폴은 노인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과연 노인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듣고 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주거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열악한 그런 형태 아닙니까?

또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주거형태를 보면 꼭 반송 어느 지역과 같이 10평에서 15평 정도 규모로 5층, 6층으로 지어서 뽁뽁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주차공간도 하나 없고, 또 쓰레기통 하나 놓을 공간도 없고, 술 한 잔 먹으면 전봇대하고 부딪혀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주거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또 전세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가.

홍콩은 절대로 공가가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 반여·반송에는 공가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가의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이며, 의회에서 어떤 것을 따져봐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문정란 위원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부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초선이신 분도 계시지만 또 재선, 3선, 4선, 5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콩에 계속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싱가포르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주민들을 직접 만나셔서 기회가 있으면 인터뷰를 해 보세요. 그들을 여기에 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만족도에 대한 인터뷰를 하나 따지면요. 한 두세 사람만 물어봐도 ‘아~ 이곳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왜 이들이 이곳을 사랑하고, 이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들의 주민 대표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면 아마 그 부분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원

문정란 위원님은 혹시 그 답을 알고서 우리한테 과제를 주시는 겁니까? 서너 명 인터뷰를 꼭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샘플링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신 과제가 지금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관광과 교통부분에 역점에 두고 보고 오려고 하는 테마를 정했었는데 재난이라든지, 안전, 또 물류, 이런 여러 가

지 문화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셔서요.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오픈 마인드 된 상태로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직무를 담당하게 저희들한테 주어진 기간 동안에 공무국외연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불현듯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헌 위원

위원장님, 전공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류라는 용어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선 위원

그런데 교통이 이 계획안 안에 들어 있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명원

큰 줄기는 저희들이 스케줄을 짜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잡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얻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순헌 위원

이번에도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개인의 소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가서 의원들의 소양이 해외의 문물을 접하고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자라고 권유는 하고 있는데, 소신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매년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더 좋은 말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사실 이번에 심의자료를 만들면서 김재선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두고 만들었는데, 홍순헌 위원님께서서는 조금 나아졌는데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내년에는 또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공무
국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
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
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